

지식서비스분야 창업거점으로 '우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창작터, 올해 11개 우수 창업기업 발굴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상, 이하 진흥원)이 사물인터넷과 앱·웹 콘텐츠, 소프트웨어, ICT 융합 등 전주지역 지식서비스분야 창업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스마트창작터 사업의 하반기 사업화지원 전국 최종 선정경에서 6개 창업팀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창작터 사업은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조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후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린스 타트업 방식으로 검증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아이

디어 사업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팀은 △고소작업차 실시간 중계 매칭 서비스(안현주 대표) △올인원스탑 여행플랫폼 'Trip 點'(김건우 대표) △반려동물 육인원 앱 서비스(김동원 대표) △한류 서브컬처 유통 플랫폼 'TEXT. WORLD'(이준행 대표)와 △커뮤니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쇼킹물 '애니멀릭'(김규진 대표) △2D 캐릭터기반 VR 애니메이션 웹 제작 도구(유병진 대표)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 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사업추진의지와 시장성, 성장가능성 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창업 팀은 약 4개월 간 협약을 맺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과 자금과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 받아 실전창업 활동에 매진하게 되며, 진흥원은 선정된 팀에게 개별 보육공간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창작터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 150명의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47개 창업팀에게 최대 300만원씩 시장검증 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국 19개 기관이 경쟁하는 하반기 최종평가에서 선정된

80개 팀 중 전주지역 6개의 팀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상반기에 5개 팀이 사업화지원 대상에 선정된 데 이은 쾌거다.

최우수 창업팀으로 선정된 안현주 대표는 "이번 스마트창작터 사업화지원팀에 선정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스마트창작터 사업을 통해 성공 창업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서문상장 진흥원장은 "선정된(예비)창업자들이 성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 시제품제작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6개 창업팀의 사업아이템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LX,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마이온샵 '대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진행한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마이온샵이 창업기업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또 조인성씨가 예비창업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LX는 9일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0개팀을 선정·시상했다.

LX는 새 정부가 제시한 '혁신 친화적 창업' 일환으로 이번 공모전을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왔다.

LX는 이번 공모전 수상팀에게 총 4억원의 창업지원금과 함께 공간정보 분야 창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또 LX공간정보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특권을 제공한다.

박명식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10개의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연결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부와 1:1로 창업자금을 조성하고 매년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기업 10곳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민근 기자

'아이들의 상상력 담은 자동차 현실로'

현대차,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12월 10일까지

현대자동차가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기도 과천시에서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1층 중앙홀에서 '제2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Brilliant Kids Motorshow)'를 개최한다.

현대자동차와 국립과천과학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이 후원하는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는 아이들이 상상력으로 그린 자동차를 실제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해 관람객들이 직접 타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한 행사다.

현대자동차는 9일 국립과천과학관 1층 어울림 홀에서 '제2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개막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상상 자동차 그림과 스토리 공모에 입상한 어린이와 학부모 300여 명,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 발표를 진행했으며, 그 밖에 시상식, 기자재 증정식, 축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담은 자동차 작품 15,021건을 접수 받았으며, 이중 ▲백과사전 자동차, ▲산소 자동차, ▲풍계동계 아무아 자동차, ▲낙엽 청소 자동차, ▲젤리 튜브 자동차, ▲내 맘대로 블록 자동차, ▲방귀 연료 자동차 등 총 7점의 작품의 상상자동차와 스토리가 실물 자동차로 제작돼 전시된다.

대상 수상작 '백과사전 자동차'는 주변의 모든 것이 공금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로, 핸들을 돌릴 때마다 사물 인식 장치가 회전해 토끼, 민들레, 감자지줄, 단풍나무 등 자동차가 마주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차량 유리창에 표시해주는 자동차다.

'방귀 연료 자동차'의 키오스크에는 메탄이 연료가 되는 과학적 원리 및 다양한 친환경 연료 차량 이야기 등 과학적인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중소기업청, 전북지역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 개최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0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전북지역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을 총 12회에 걸쳐 개최한다.

10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의 농공단지 및 창업·벤처기업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12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정보제공, 규제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상담으로 운영된다.

전북지역 비즈니스지원단은 경영,

수출입, 노무 등 12개 분야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상담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인, 벤처·창업인,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해소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 찾아가는 원스톱 종합민원 해소를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에는 신산업 분야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창업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및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사태를 현장 접수받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퀵런형 전자담배 사제기... 최대 2년 징역형 받아

9일 낮 12시부터 아이코스과 글로 등 퀵런형 전자담배를 사제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퀵런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퀵런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

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퀵런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했다.

위반시 '불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뉴스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방송중계·비행공연·도시지역 택배 등에 활용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시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

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특별 승인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사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게 된다.

또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시간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